

#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부 혜 진\*\*

## Rural Change by Increase in Urban-to-Rural migrants in Jeju Island\*

Bu, Hyejin\*\*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촌락지역에 있어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인한 촌락지역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비 농업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지역조직에 초점을 두어 촌락지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주도 촌락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인구 증가는 촌락지역에서의 관광서비스업체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로 인해 촌락지역내에서는 서비스공간의 조성과 함께 토지이용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인구에 의해 결성된 지역조직은 기존 촌락지역의 조직과는 조직 구성원, 조직 활동과 활동주진체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사례조각인 서귀포시귀농귀촌협동조합은 촌락지역에서 결성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성격을 띤다.

**주요어** : 귀농·귀촌, 관광서비스업, 지역조직, 촌락지역, 제주도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rural change by increasing in urban-to-rural migrants in rural Jeju. In particular, the author analysed changes in rural area focusing on non-agricultural sector and local organization. Urban-to-rural migrants into rural Jeju have been causing increase in tourism business. Such an increase in tourism business caused increase in construction of service space and changes in land use. Meanwhile, the local organization formed by urban-to-rural migrants has differences in its members and its activities and implementing system of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native local organizations. The Seowgipo Rural Migrants Cooperative, which is the research target, has characters of urbanism even though it was formed in rural area.

**Key Words** : Urban-to-rural migrants, Tourism service sector, Local organization, Rural area, Jeju Island

## 1.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4년간의 제주도의 인구변화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제주이민’<sup>1)</sup>이라는 신조어의 탄생과 유행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이민’이라는 용어 자체의 적합성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의 제주도로의 이주자 증가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 이동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통계청, 2014b), 이윽고 총인구는 62만 4067명(2015년 2월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제주일보, 2015년 3월 12일자 기사). 2000~2009년 사이의 제주도 인구의 특징은, 인구의 순유입보다는 순유출 현상이 현저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유입 현상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것이다<sup>2)</sup>.

더욱이 이러한 제주도의 인구증가 현상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같은 시가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읍, 면지역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12개의 읍, 면지역 중 애월읍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읍, 면지역에서 2000~2009년까지 인구감소가 계속되었으나, 2010년도부터 비로소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그 영향과 결과가 단순히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 면지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와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는, 귀농인이 지역 주민의 참여가 낮은 학교 내 운영위원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군(황정임 등, 2011)을 들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 7049637)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강사(Lecturer,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ost\_ism@hanmail.net)

그리고 이러한 이주자들의 참여는 지금까지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 왔던 촌락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촌락지역에서의 변화와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의와 분류법에 대한 합의가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sup>3)</sup>. ‘귀농인’은 촌락으로 이주 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이고, ‘귀촌인’은 이주 후에도 비농업 분야 즉, 사업가, 교사,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인구(구지영, 2013)로 정의하여 분류함으로써, 정책적 관심이 귀농인에게로만 향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sup>4)</sup>. 그러나 ‘귀촌인’ 역시 ‘귀농인’들과 마찬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지역의 산업, 지역 공동체, 지역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주도의 경우 많은 ‘귀촌인’들이 이주 후 촌락지역의 유흥공간을 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 카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오성훈 등, 2013), 그러한 비 농업적 경제활동은 관광업으로 대표되는 지역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촌락지역이 지닌 풍부한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촌락지역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들은 촌락지역이 지닌 인문·자연환경에 실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Brehm *et al.*, 2004).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촌락지역의 인구, 지역 산업,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도 동반한다(Smith and Krannich, 2000, 397).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및 개발 금지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데 귀농·귀촌인이 영향력을 가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촌락의 인문·자연환경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데 귀농·귀촌인이 적극 참여하여 촌락경관의 상품화를 심화시키기도 한다(Gosnell and Abrams, 2011). 이와 같은 촌락지역에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촌락이 지니는 촌락성(rurality)<sup>5)</sup>에 영향을 준다(권상철 등 편역, 2014).

현재 촌락지역에서는 비농업 부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엄은희, 2012),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귀촌인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귀농·귀촌인구의 이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귀농인과 귀농현상으로 인한 촌락지역으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외에 귀촌인과 비농업적 경제활동의 현황, 그리고 그로 인한 촌락지역으로의 영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에서 촌락지역에서 나타나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분석의 과정에서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에 동반되어 나타난 촌락지역에서의 비 농업적 경제활동과 지역조직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도시로부터의 귀농·귀촌인구는 이주 후 농업뿐만 아니라 비 농업적 경제활동에도 종사한다. 그러한 비 농업적 경제활동은 촌락지역에서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영위해 온 공통의 경제활동과는 다른 것이고, 공통의 경제활동에 동반되어 형성되어 온 지역조직과 같은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촌락지역의 실질적 인구증가가 있었던 2010~2013년 동안의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촌락지역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통계자료 분석, 위성사진 분석, 현지조사이다.

먼저 문헌자료로는 제주도 귀농·귀촌인구와 관련된 자료로 제주도청 및 각 시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자료 및 평가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인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주민등록통계연보, 통계청에서 발간되고 있는 국내이동통계 보고서, 제주도에 산업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광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특히 각 읍, 면지역 별 귀농·귀촌 인구의 변화 추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일환으로서의 농·어촌 민박(게스트하우스 및 펜션 등)시설 변화 추이 및 지역별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GIS를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지도화 하였다. 그 과정에서는, 각 시청에서 제공된 귀농·귀촌인구 통계자료가 실제 귀촌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통계연보와 함께 각종 신문기사 자료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는 2014년 3월, 5월, 6월, 7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읍, 면지역에 분포, 정착해 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귀농·귀촌인에 의해 조직된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원

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합 활동에 참여, 관찰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운영하는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및 교류행사에도 직접 참여, 관찰하였다.

## 2. 귀농·귀촌현상에 대한 연구동향 및 논의

지금까지의 국내 귀농·귀촌연구는 크게 첫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방안 연구(강대구, 2010; 고상환·김동현, 2011; 김정섭, 2009; 윤석환, 2010)와 둘째, 귀농·귀촌인구의 이주동기와 지역 적응과정(박공주 등, 2007; 서만용·구자인, 2005; 우중현, 1997; 진양명숙, 2008; 황정임 등, 2011), 셋째, 귀농·귀촌현상과 촌락성(엄은희, 2012; 진양명숙, 김주영, 2014; Halfacree, 1995)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분야에서도 특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 분야는 귀농·귀촌 정책방안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주로 행정학, 농촌 개발학, 지역개발 및 개발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귀농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귀농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나 규칙제정과 같은 지원(윤석환, 2010), 귀농인이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강대구, 2010), 귀농인들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귀농교육(고상환·김동현, 2011), 상담이나 교육훈련과 같은 연성적 정책 프로그램(김정섭, 2009) 등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과제를 제시한다. 더불어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귀농·귀촌인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한 연구(오수호, 2011; 유학열, 2011; 전북지역농업연구원, 2008)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귀농·귀촌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대상자는 귀농인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귀농·귀촌인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대다수의 연구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적응과정에서 농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을 밝히거나(박공주 등, 2006), 지역사회 참여활

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황정임 등, 2011).

대부분의 국내 귀농·귀촌연구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데 반해, 일부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성과 함께 다른 시각에서 귀농·귀촌 현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귀농·귀촌현상과 촌락성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것이고, 이들 연구는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준비중인 예비 귀농인과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엄은희(2012)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와 함께 변화되고 있는 촌락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촌락성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진양명숙과 김주영(2014)의 연구에서는 촌락성을 귀농·귀촌 현상의 주요 이주동기로서 이해하여 동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촌락성 담론(전원, 생태, 감성 및 인성의 공간)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촌락성을 물리적 또는 객관적 실체가 아닌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여 접근하고 있다.

귀농·귀촌과 같은 도시-농촌 간의 이주는 단순히 인구의 거주지 변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농업이나 농업 정책이라는 특정의 맥락으로서만 이해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인구의 이동이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을 피하는 현상(권상철, 2010)이고, 한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은 인구이동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오수호, 2011). 바꾸어 말하자면, 귀농·귀촌 현상이 좁게는 도시와 촌락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을, 넓게는 세계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실제 정착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야기(Gosnell and Abrams, 2011)시키기 때문이다. Gosnell and Abrams(2011)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역동적 변화가 촌락의 구조, 지역고용 패턴, 교통수단, 디지털 서비스 경제의 성장, 통신서비스의 증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소비행태의 변화<sup>7)</sup>, 계층 간 소비문화의 차이, 토지이용의 변화, 촌락경관의 상품화와 그것을 통한 자본 축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변화의 단면은 뉴스위크(Newsweek)지의 커버스토리에 등장한 촌락의 새 풍경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세련된 새 집과 멋진 아트 갤러리, 도시로부터의 부유한 이주자들은 전통적인 산간 지역을 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그러면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분리된, 지역으로 바꾸고 있다. 카우보이들이 연방수사관이나 군인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카푸치노 커피숍과는 어떤가? (Smith and Krannich, 2000에서 재인용)”

위에 제시된 사례는, 미국의 한 산간 지역에서의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른 촌락지역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민의 촌락지역으로의 이주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는 소비문화, 경제활동, 지역개발의 접근방식, 교통수단, 촌락정책같은 요소간의 상호작용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상호작용은 촌락지역의 인구와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는 촌락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권상철 등 편역, 2014).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촌락구조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시적 관점에서 촌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촌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촌락지역의 변화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정의야만 한다<sup>8)</sup>. 그러한 논의를 통해 규명된 촌락구조가 촌락의 정체성 논의<sup>9)</sup>에 필요한 근거가 된다. 덧붙이자면 이것은 앞서 언급한 촌락성에 관한 논의에 직결된다.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촌락구조에 대한 논의를 위한 선행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촌락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촌락지역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수십 년간 인구감소를 경험해온 촌락지역으로 다양한 연령, 직업적 배경을 지닌 귀농·귀촌인구가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다. 인구이동이 지리적 이동입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권상철, 2010)임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인구가 촌락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촌락지역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면식관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공통의 규범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시켜 왔고, 필요에 따라 사회관계를 정리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구성원들의 생활을 계속시켜 왔다(부혜진, 2011). 한편,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요 경제활동 면에 있어서도 생산 활동이 주로 자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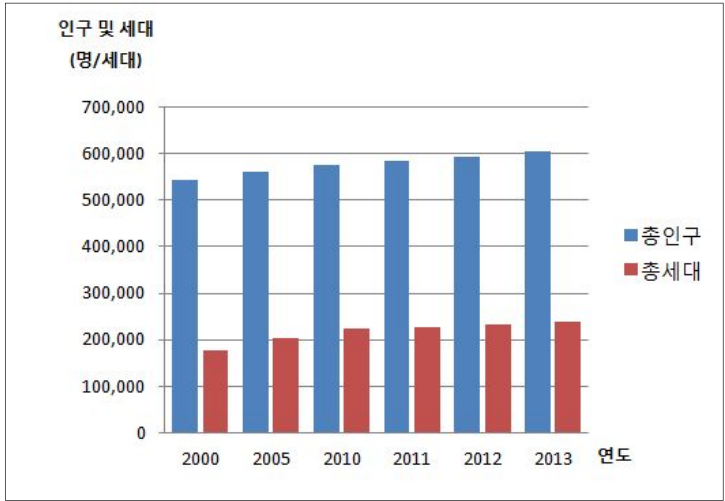
건에 기반 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토지와 바다(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오홍석, 1985). 동시에 촌락지역의 구성원들이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생활기반을 두고 공통의 경제활동을 오랜 기간 영위해 왔고(오홍석, 1985), 더욱이 그러한 생산 활동과정에서는 조직을 결성하여 공동작업을 실시함으로써(夫, 2010; 부혜진, 2011), 촌락지역 사회의 단결성을 높여왔다(石原 潤 등 편역, 1986). 그렇기 때문에 비 농업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촌락지역의 특징 중 하나인 농업 혹은 어업과 같은 공통적 경제활동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결성되는 지역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촌락지역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 3. 제주도 읍, 면별 귀농·귀촌인구 변화 추이

#### 1) 제주도의 인구변화 및 지역별 분포 특징

제주지역에서의 인구는 2000~2013년까지 10여년간 약 6만1천 명 정도가 증가하였다(그림 1). 제주도의 총인구는 2009년까지 약 55만 명 정도의 인구규모를 유지해 왔고, 2010년에 이르러 55만 명 규모를 넘어섰으며, 2013년 현재는 604,670명(총세대수 238,465세대)에 이르렀다(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2013). 즉, 2000~2009년까지의 9년 동안에는 24,590명이 증가하였고(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2000, 2009), 2010~2013년까지의 4년 동안에는 27,483명이 증가한 것으로(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2010, 2013) 최근 4년간의 인구증가 규모가 2000~2009년간의 인구증가 규모보다 더 크다. 따라서 지난 13년간의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201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현상은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인구 순유입현상에 의한 것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한 순유출현상이 계속되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한 인구의 순유입현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자가 제작성.

그림 1. 제주도의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

이 지속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14). 2014년 2월 현재 제주도의 인구 순이동자수는 1,091명으로 세종시(2,110명)와 경기도(5,35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의 순이동율은 세종시(1.69%) 다음으로 높은 0.18%를 보인다(통계청, 2014b). 이주자들의 이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

울이 약 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지역 약 27%, 부산이 약 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4a).

한편, 2000~2013년간의 인구 증가는 제주도내에서도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표 1>은 지역별, 시기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00~2013년까지의 13년간의 인구증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한림읍, 애월읍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 인구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그 전, 후의 인구증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00~2009년까지의 인구증가는

제주시와 애월읍에서만 나타났고, 2010~2013년 사이의 인구증가는 시가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뿐만 아니라,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우도면,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과 같은 읍, 면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 중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온 곳은 제주시와 애월읍

표 1. 제주도 지역별, 시기별 인구변화 추이

| 지역구분           | 2000~2009년 인구증감 | 2010~2013년 인구증감 | 2000~2013년 인구증감 |        |
|----------------|-----------------|-----------------|-----------------|--------|
| 제주시            | 39,875          | 22,248          | 67,396          |        |
| 제주시부<br>읍,면지역  | 한림읍             | -1,461          | 1,553           | 290    |
|                | 애월읍             | 1,043           | 1,265           | 3,686  |
|                | 구좌읍             | -2,518          | -502            | -2,948 |
|                | 조천읍             | -18             | -637            | -123   |
|                | 한경면             | -1,675          | 35              | -1,524 |
|                | 추자면             | -453            | -242            | -689   |
|                | 우도면             | -159            | 54              | -54    |
| 서귀포시           | -1,934          | 2,874           | 2,104           |        |
| 서귀포시부<br>읍,면지역 | 대정읍             | -2,355          | 456             | -1,765 |
|                | 남원읍             | -2,437          | -30             | -2,259 |
|                | 성산읍             | -1,773          | -1              | -1,694 |
|                | 안덕면             | -980            | 307             | -711   |
|                | 표선면             | -565            | 103             | -30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자가 제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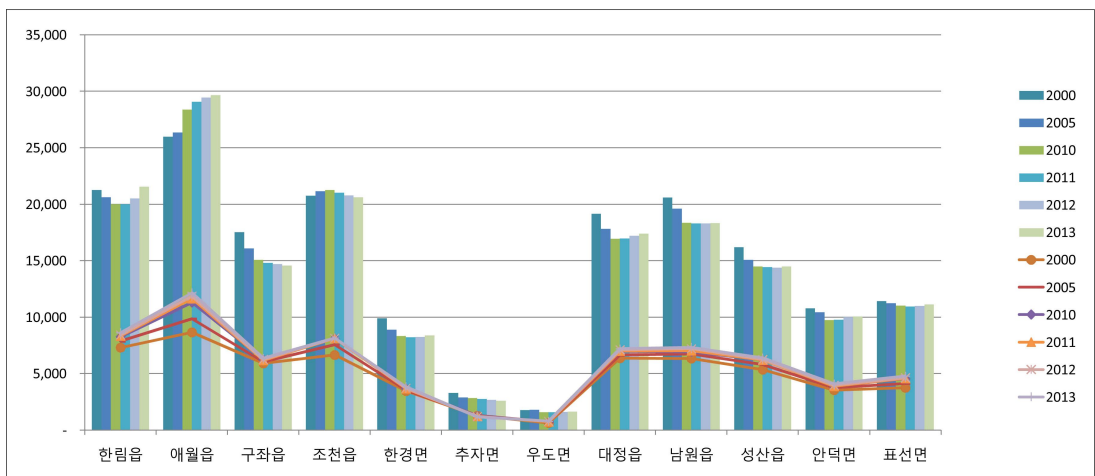
로, 인구증가의 배경으로는 택지개발사업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제주도발전연구원, 2014). 제주시의 노형동, 연동(이성용, 하창현, 2014)에서의 대규모 아파트건설, 연립주택 입지, 애월읍의 하귀1~2리, 광령1리, 고성1리와 같은 제주도 시가지지역에 인접한 마을에서의 도시개발사업(제주도발전연구원, 2014)과 그에 따른 택지개발(정광중, 2013)이 인구증가를 야기한 것이다.

## 2) 읍, 면별 귀농·귀촌인구 분포의 특징

2010년 이후부터의 인구 순유입현상은 읍, 면지역에서의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읍, 면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제주도의 읍, 면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구의 규모는 전국 각 지역별 귀농·귀촌인구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가장 작다(강승진, 고상환, 2011).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지방의 촌락에서는 귀농·귀촌을 통해 전입해 온 이주자 보다는 전출자의 수가 더 많아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귀농·귀촌인들로 인해 실질적 인구증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0)</sup>. 이러한 현상은 2010년도 이후부터 뚜렷하게 보여 지는데, 12개 읍, 면지역 중 애월읍을 제외한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 대정읍, 안덕면, 표

선면이 경우가 그러하다. 그 외의 읍, 면지역중 남원읍, 성산읍 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나, 2013년도에 들어서는 2010년도의 인구규모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

〈표 2〉는 2008~2013년 동안의 귀농·귀촌인구의 누적수를 보여준다. 단,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는 귀농·귀촌인구통계에 귀촌인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읍, 면지역으로 이주한 귀촌인들은 제시된 수치보다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11)</sup>. 현재 2010~2014년까지 제주도의 읍, 면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3,108 가구의 5,7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조선비즈, 2015년 2월 12일자 기사). 귀촌인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 〈표 2〉에서는 연도별로 주민등록인구통계상의 가구 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각 시에서 제시한 귀농·귀촌인구의 가구수 및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각 시가 제시한 제주도의 귀농·귀촌가구는 전 읍, 면지역에 걸쳐 분포하지만 구좌읍과 남원읍에 특히 집중해 있고, 조천읍에는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로 계산한 가구 수는, 애월읍에 가장 많고, 그 수치는 두 번째로 많은 남원읍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가장 적은 수치를



주: 그래프상에서 막대그래프는 인구수를, 꺾은선 그래프는 세대수를 표시한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자가 재작성.

그림 2. 제주도 읍, 면별 인구변화 추이

표 2. 읍, 면별 귀농귀촌 현황 (2013년)

| 제 주 시  |         |       | 서 귀 포 시 |         |         |       |     |
|--------|---------|-------|---------|---------|---------|-------|-----|
| 읍,면,동  | 귀농·귀촌인구 |       | 주민등록인구  | 읍,면,동   | 귀농·귀촌인구 |       |     |
|        | 가구      | 인원(명) |         |         | 가구      | 인원(명) | 가구  |
| 한림읍    | 83      | 182   | 361     | 대정읍     | 42      | 87    | 239 |
| 애월읍    | 88      | 198   | 857     | 남원읍     | 121     | 284   | 406 |
| 구좌읍    | 99      | 187   | 129     | 성산읍     | 75      | 171   | 207 |
| 조천읍    | 23      | 45    | 17      | 안덕면     | 47      | 123   | 204 |
| 한경면    | 88      | 215   | 167     | 표선면     | 63      | 150   | 250 |
| 제주시동지역 | 62      | 96    |         | 서귀포시동지역 | 287     | 676   |     |
| 합계     | 443     | 923   |         | 합계      | 635     | 1,491 |     |

주: (1) 각 가구수 및 인원수는 2008년~2013년간의 누적수를 의미한다.

(2) 동지역은 각각의 시를 구성하고 있는 동지역을 의미한다.

(3) 주민등록인구는 2010년, 2013년의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2013년 등록된 가구수 - 2010년 등록된 가구 수)한 수치이다(미주 5 참조).

자료: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귀농·귀촌인구 현황(2008~2013),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2010, 2013)에 근거하여 필자가 제작성.

갖는 곳은 귀농·귀촌통계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천읍이다.

#### 4. 제주도 촌락지역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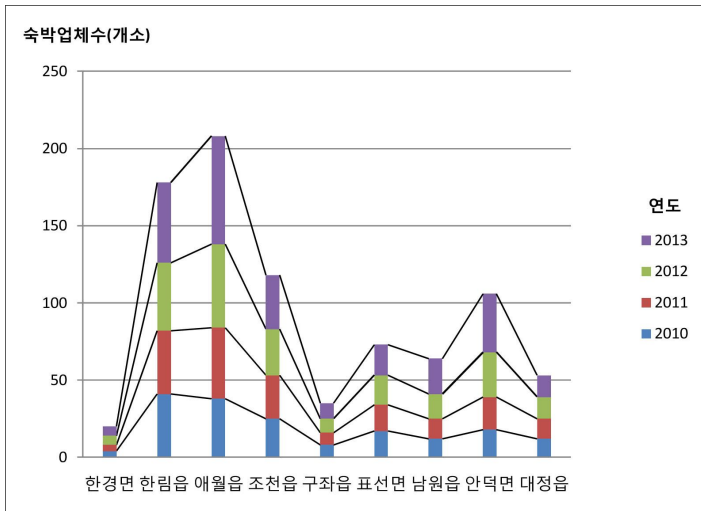
촌락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의 존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촌락지역에서의 농업후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농인은 다름 아닌 귀농인으로 보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비농업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귀촌인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촌락지역 토착주민들과의 직업적 차이는 실제로 촌락공간에서 직업활동 공간, 토지이용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생산활동과 그에 따른 조직형성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 1)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분야의 다양성과 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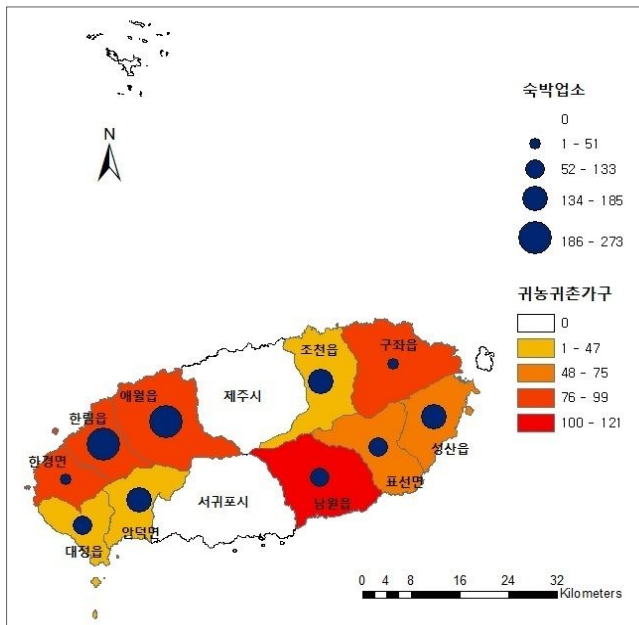
제주도에서의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촌락지역에서 경제활동 면에서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관광농원의 증가는 물론 음식점 및 카페, 펜션,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인구도 늘어드는 추세이다(서귀포시, 2013). 제주시의 경우 귀농·귀촌가구의 5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중 밭작물 재배 농가는 27%, 과수재배 농가는 18%, 원예 농가는 12%, 축산 농가는 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는 귀농·귀촌가구의 약 59%가 농업에 종사한다. 그 중 과수재배 농가는 53%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에 밭작물 재배 농가는 5%, 원예 농가는 1%를 차지한다(서귀포시청 및 제주시청, 2008~2013 귀농·귀촌인구 현황자료).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통적으로 50%이상의 귀농·귀촌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40% 정도가 비농업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서귀포시에서 비농업적 분야에 종사하는 귀농·귀촌가구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으로는 펜션 및 민박, 게스트하우스(12%), 카페와 레스토랑(22%), 숙박업과 카페(3%)이 주를 이룬다(서귀포시, 2013)<sup>12)</sup>. 즉, 비농업 분야의 주된 경제활동은 관광서비스업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3)</sup>.

<그림 3>는 읍, 면별로 숙박업체의 증가정도를



자료: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농어촌 숙박업소 현황(2010~2013), 휴양펜션 등록현황(2010~2013)을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3. 연도별, 지역별 숙박업체의 증가 추이



주: (1) 본 지도에서 사용한 귀농·귀촌가구는 각 시청이 제공한 자료로,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와는 무관하다.

(2) □으로 표시된 구역은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읍, 면지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화 과정에서 이 두 지역의 귀농·귀촌인구수와 숙박업소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료: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귀농·귀촌인구현황(2008~2013), 농어촌 숙박업소 현황(2008~2013), 휴양 펜션 등록현황(2008~2013)에 근거하여 필자가 지도화.

그림 4. 읍, 면별 귀농·귀촌가구 대비 숙박업체 분포

보여주고 있다. 숙박업체의 분포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든 읍, 면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인다. 가령 구좌읍 송당리의 경우, 지난 2013~2014년의 1년 동안 10곳의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다<sup>14)</sup>. 한편,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2010년부터 귀농·귀촌인구의 유입으로 실질적 인구증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시부의 한림읍, 애월읍, 서귀포시부의 안덕면은 2010년도 당시 숙박업체수가 가장 많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남원읍과 같이 귀농·귀촌가구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50여개소의 숙박업체만 입지한 곳도 존재한다(그림 4).

촌락지역에서의 비농업적 경제활동 종사자의 증가는 직업적 다양성과 함께 경제활동 공간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촌락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가구의 40% 정도가 비농업적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대다수의 가구가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은 그 목적에 합당한 서비스공간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와 펜션 시설은 촌락의 민가를 리모델링하거나(오성훈 등, 2013), 건물을 신축하는 형태로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비스공간의 조성은 촌락지역내에서의 토지이용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5, 6>의 위성사진은 각각 2008년도와 2013년도의 구좌읍 월정리 마을의 토지이용을 보여준다. 이 마을에서는 2011년도부터 해안도로 주변에 카페가 입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을의 토지이용 변화를 카페거리가 형성되기 전(2008년)과 후(2013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자료 : 다음 위성사진

그림 5. 2008년 월정리 해안가와 그 인근의 토지이용



자료 : 다음 위성사진

주 : 위성사진 상의 붉은색 원 표시는 2008년도의 토지이용과 비교하였을 때 토지이용 상에서 변화가 있는 곳을 나타낸다.

그림 6. 2013년 현재 월정리 해안가와 그 인근의 토지이용

같은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2013년도의 위성사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은 2008년도에는 나지 또는 농지였지만,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이곳에 카페들이 입지, 확장하게 되면서 2013년도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카페영업을 위한 상업용지와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그림 7).

제주도 촌락지역의 대다수의 농가가 전업농가 혹은 반농·반어가들로 수십 년간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해 왔다. 최근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그러한 촌락지역에서의 비 농업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의 증가, 특히 관광서비스업의 증가를 초래하면서, 촌락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읍, 면지역에서의 관광서비스업의 증가는 기존의 촌락지역에서의 경제활동 공간, 즉 농지 및 어장과는 다른 서비스공간의 조성과 그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



자료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3034.html>

그림 7. 구좌읍 월정리 해안가에 형성된 카페거리 일부모습

공간의 조성 과 토지이용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는 촌락경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 2) 귀농·귀촌인 중심의 지역조직: 서귀포귀농 귀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남원을 남원1리에 위치한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2011년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로 귀촌한 A씨(40대, 현 협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30명의 조합원이 2013년 7월에 결성한 지역조직이다.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된 목적은, 남원읍에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정착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다. 2013년도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활동기간은 약 1년 정도이지만, 서귀포시로 이주를 결정하거나 이주해 온 많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관한 정보, 이주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얻기 위해 협동조합에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협동조합의 정보제공과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서귀포시와 남원읍의 귀농·귀촌전담부서의 인정을 받아, 시와 읍에서는 지역정보나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한 문의는 협동조합으로 재 안내하여 자문을 얻도록 하고 있다<sup>15)</sup>. 즉, 협동조합이 이주자들의 지역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역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직을 구성하는 조합원과 활동 면에서 기존의 마을 조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마을회를 제외한 남원1리의 자생조직으로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영농회, 작목반, 기타(생활개선회, 참수회)가 있고<sup>16)</sup>, 이들 조직은 구성원 면에서 남원1리의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거주지는 남원1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노인회와 부녀회, 청년회와 같은 계층조직은 마을의 노인층, 부인층, 청장년의 남성으로 구성되고,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조직의 주된 활동으로는 마을의 원활한 자치를 위한 자원봉사와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들이 있다(夫, 2010). 한편, 영농조직과 참수회와 같은 기능조직<sup>17)</sup>은 마을 주민들이 농업, 어업과 같은 동일한 경제 활동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조직으로, 기본적으로 공동의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조직의 주된 활동은 영농활동과 참수와 같은 생산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의 경우는, 30명의 조합원의 거주지가 남원1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서귀포시, 남원2리, 태흥리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조합원의 연령대도 30대(4명), 40대(16명), 50대(5명), 60대 이상(2명)이고, 절반 이상의 조합원(17명)이 제주도로 이주하여 정착한지 2년 이하로 거주기간

표 3.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 분 류 | 경제 활동  | 문화 활동                          | 독서 및 학습                               | 추진 예정인 활동   |
|-----|--|--------------------------------|---------------------------------------|---|
| 내 용 | · 사랑의 감귤 나누기 <sup>18)</sup><br>· 농축산물 꾸러미 사업 | · 그림 그리는 해녀 (해녀대상 미술수업 및 미술치료) | · 북클럽 모임(지역 독서 동아리)<br>· 사회적 경제 공부 모임 | · 마을 여행사 창설 및 운영<br>· 청춘극장(각 마을을 방문하여 영화 및 공연 상영) |

자료 :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대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도 짧은 편이다<sup>19)</sup>. 뿐만 아니라, 조합의 가입 면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사회적 경제 강의를 이수 및 수료해야만 한다. 조합원들의 현 직업은 목사, 프리랜서, 여행업, 문화예술기획, 농수산물가공업, 농업, 어업, 작가, 펜션 및 체험농장운영으로 다양하고, 이러한 직업적 다양성은 협동조합의 활동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표 3>은 협동조합의 주요 활동을 나타낸다. 활동 영역은, 경제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 독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경제 활동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농축산물 꾸러미는 협동조합의 대표적 경제활동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조합원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하위조직을 결성해 왔다. 이와 관련한 활동과 하위조직이 바로 농축산물 꾸러미 사업과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 기업 제주살래(이하 제주살래)’이다. 농축산물 꾸러미 사업은 제주도내의 지역 영농조합과 연계하여 농축산물 꾸러미를 생산, 판매하는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도권 거주자들, 시민단체 회원 등의 판매처를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활동은 제주살래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타 지역의 영농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사업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협동조합 내부에서 전부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내의 다양한 영농조합으로부터 농축산물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활동의 과정에서 타 지역 또는 타 지방의 조직 또는 비 조합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사랑의 감귤 나누기와 지역 독서 동아리 모임인 북클럽 모임이 있다.

제주도 촌락지역의 지역조직으로는 촌락 공동체

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연령 및 성별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계층조직과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는 기능조직이 있다(夫, 2010). 마을을 단위로 결성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마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은 복수의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夫, 2010; 부혜진, 2011). 촌락지역은, 구성원들이 사회적 행동에 관한 공통적 가치와 규범을 가지기(石原 潤 등 편역, 1986) 때문에 안정적, 통합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촌락성(ruralism)(Halfacree, 1993)을 갖는다. 그리고 촌락지역의 자원은 일(work)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일이 가족조직의 형태와 사회관계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石原 潤 등 편역, 1986). 남원1리의 지역조직의 형태와 성격은 촌락사회가 갖는 촌락성(ruralism)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협동조합은 다른 지역조직들과 마찬가지로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지만 성격 면에서는 기존의 지역조직과 대조적이다.

먼저, 구성원들의 거주지가 조직이 입지해 있는 남원1리를 벗어난다는 점은 물론 구성원들의 직업 또한 다양하다. 때문에 협동조합의 모임이외의 활동영역 또는 생활 전반에 걸친 구성원들 간의 빈번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sup>20)</sup>. 대신, 각자의 직장과 거주지나 조합활동, 종교활동, 정당활동, 취미활동<sup>21)</sup>을 통하여 남원읍내의 토착주민, 서귀포시의 도시주민 등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경험한다.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도시지역의 도시 주민들이 직장, 집, 여가 등을 통해 다양한 접촉을 갖는 도시성(urbanism)(Halfacree, 1993)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활동 면에서도 생산활동과 그에 필요한 공동작업은 기존 촌락지역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기존의 지역조직에서의 경제 및 생산활동은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농업 또



는 어업과 같은 공통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반해, 협동조합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과는 상관없이 농축산물 판매라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 지역의 영농조합과의 협력체계는 필연적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추진체제는 도시지역의 도시주민, 도시조직이 갖는 유기적 연대나 합리성과 같은 도시성(Halfacree, 1993)에 가깝다.

## 5. 요약 및 결론

인구의 이동은 한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기틀이 된다. 때문에 인구이동은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오수호, 2011). 본 연구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주도 촌락지역에 있어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가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경제활동 분야와 지역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지난 4년간의 제주도 인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 이동률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인구증가 현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같은 시가지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읍, 면지역과 같은 촌락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읍, 면지역에서의 실질적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읍, 면 지역별 귀농·귀촌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2010년 이후 12개 읍, 면지역 중 애월읍을 제외한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 대정읍, 안덕면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등지에서는 일시적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는 남원읍, 한경면, 애월읍, 구좌읍에 집중해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촌락지역의 경제활동과 지역조직의 측면에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먼저,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변화는 촌락지역에서의 비 농업분야 종사자 증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귀농·귀촌가구 중 50% 이상이 농업에, 약 40% 정도가 비 농업적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주된 비 농업적 경제활동 분야는 숙박업과 음식업으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제주도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아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관광서비스업 관련 업체들은 지난 4년간 각 읍, 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촌락지역에서의 귀농·귀촌인구에 의한 관광서비스업의 증가는 기존의 경제활동공간과는 다른 서비스공간의 형성과 그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공간의 확대와 토지이용의 변화는 촌락지역의 경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또 하나의 변화는 귀농·귀촌인들에 의해 형성된 지역조직에서 나타난다. 남원1리의 지역조직으로 결성된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은 조합의 구성원과 활동 측면에서 기존의 남원1리 지역조직과 대조를 이룬다. 즉, 구성원의 거주지가 남원1리를 벗어난다는 점, 구성원의 직업분야도 농업, 어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동일한 구성원들 간의 빈번한 접촉을 경험하는 대신, 조합활동, 서로 다른 직장과 거주지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경험한다. 한편 활동 면에서는, 협동조합이 경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원1리의 경제활동 조직들과 공통점을 갖지만, 그 활동의 추진배경과 추진체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구성원들의 종사하는 직업분야와는 상관없이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및 생산활동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영농조합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만 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성격은 도시지역의 도시주민, 도시조직이 갖는 도시성에 가깝다.

촌락지역에서의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촌락공간의 인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영향은 촌락사회와 공간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시킨다. 그러한 변화가 지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하여도 지역변화의 한 과정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때문이야 말로 그러한 지역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연구되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과 지역조직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고, 귀농·귀촌가구가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 배경과 이유, 지역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이주동기를 분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주 전 거주지역과 이주 후 촌락지역에서의 경제적 변화, 목적지의 지리적 특징 등도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 주

- 1) 이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4일 한겨레신문 esc매거진 기사, 2013년 4월 8일자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제주이민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주이민서로는 『거침없이 제주이민』(기락 저, 2012, 꿈의 지도), 『제주에 살어리랏다』(김정희, 정화영 저, 2012, 청아람미디어), 『제주도 살고 싶다』(이두나 저, 2012, 시공사)를 들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제주이민’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논외로 한다.
- 2) 제주도 인구의 순유입현상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1960~1970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약 7,700명 정도 규모의 인구 순유입이 있었다(염미경, 2011). 그리고 지난 3년간(2011~2013)의 제주도의 순유입인구는 8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계청, 2014a).
- 3) 아직 국내에서는 귀농과 귀촌의 개념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는 상태이다. 어떤 개념이 상위개념인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고 각 개념의 범주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홍성효 등, 2012).
- 4) 농촌으로 이주해 온 이주자들을 이주형태별로 유형화 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주 후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를 ‘귀농인’, 비농업적 부문 종사자 또는 소규모 영농자를 ‘귀촌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귀농인’은 분류되어 갖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업연수, 농업창업 융자, 주택구입이나 신축에 대한 융자와 같은 귀농정책들은 이주 후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5) 국내에서 ‘rurality’는 ‘농촌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촌락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촌락지역’은 농촌과 반농반어촌을 지칭하고 있고, 그러한 상이한 성격의 촌락지역이 지닌 ‘rurality’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촌락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6) 제주일보 2014년 3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2013년도에 제주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촌가구는 204가구로, 2012년도 귀촌가구 수 보다 2.7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제주도 귀촌가구의 증가폭은 전국의 귀촌가구의 증가율(36.2%)보다 더 크다.
- 7) 즉, 물품의 소비에서 생활방식(life style), 아이덴티티, 문화와 레저의 소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 8) 유럽과 북미의 촌락연구에서 제시되는 촌락구조의 변화는, 촌락을 정의하기에서부터 경제의 세계화(과학기술, 사회변화, 농업변화, 정부의 농업정책 등), 촌락경제의 변화(촌락의 서비스업, 1차산업, 제조업), 촌락의 인구변화(수백년에 걸친 이촌향도와 역도시화), 촌락의 공공서비스, 촌락거버넌스, 촌락의 빈곤과 환경문제 등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권상철 등 편역(2014)을 참조하기 바란다.
- 9) Halfacree와 Cloke, Woods를 비롯한 많은 촌락연구자들이 촌락을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촌락이 변화해 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촌락지역 역시 경제, 사회, 정치, 인구의 측면에서 도시지역이 갖는 도시성(urbanism)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촌락의 촌락성(rurality)은 다양한 접근방법으로도 정의내리기 어려운 모호성을 갖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권상철 등 편역(2014), Halfacree(1993, 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 10) 통계청 자료(2014a)에 따르면, 2013년도 지역별 귀농·귀촌 인구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는 경북(2,087가구), 전남(1,825가구), 경남(1,348가구), 전북(1,211가구), 충남(1,177가구)을 들 수 있고, 제주도는 총 268가구로 9개 도에서 가장 그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인구의 순이동률 측면에서는 제주도가 1.3%로 9개 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귀농·귀촌 인구규모가 가장 컸던 경북의 경우는 -0.1%, 전남 -0.1%, 경남 0.1%, 전북 -0.1%, 충남 0.7% 등으로 대다수의 지역이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거나, 순이동률이 1%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11) 제주시 및 서귀포시청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자료에서 제시된 귀농·귀촌인구 및 가구수의 자료는 귀촌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자료에는 귀농인구와 일부의 귀촌인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한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읍, 면별 전입자통계자료를 이용하려 했으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로 입수가 어려웠고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도와 2010년도의 가구 수 변화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 12) 경제활동 내용중 숙박업과 카페는 숙박업소와 함께 카페를 함께 경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본문에 제시한 활동 내용 외에는 펜션과 농업이 있고 이 활동은 펜션을 경영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3) 서비스업 이외의 경제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귀농·귀촌가구도 일부 존재한다. 가령, 방송작가, 만화가, 작가, 실공예가, 영상작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등 직업군에 종사하는 인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만화가 H씨, 실공예가 S씨, 영상작가 D씨 인터뷰에서)
- 14) 송당리 S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인터뷰에서.
- 15) 이에 덧붙여 협동조합 대표자 A씨는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을 한다. “서귀포시에서 귀농귀촌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귀농귀촌교육도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교육을 받고 정착하는 곳은 리 단위의 마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일은 행정에서 하기 어렵죠. 가령 서귀포시(귀농귀촌전담 부서 직원)가 대정읍까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지역사회와 주민과 잘 연결해서 정착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2014년 5월 16일 A씨의 인터뷰에서)

- 16) 남원1리 홈페이지. <http://jejuvill.net/jejutown/domain-root/4209/0105?ss=ok>
- 17) 기능조직에 관해서는 부혜진(2011)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 18) 이 활동의 주요 내용은 감귤의 판매와 함께 서울의 저소득층 가정에 계절 과일을 보내는 것이다. 협동조합과 협력관계에 있는 서울시의 시민연대 회원들이 주문한 감귤량의 10%를 소외계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로 비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 활동은 조합원에서 생산한 감귤 판매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경제-복지활동이다.
- 19) 협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20)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정기 모임과 활동이 있을 때에만 교류를 하고 있다. 조합원에 따라서는 조합의 모임에 한 달에 3~4번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 21)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이외에 종교활동, 정당활동, 골프활동을 위한 각각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 문헌

강승진, 고상환, 2011, 기본연구 2011-18 제주지역 귀농·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강대구, 2010,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7(4), 743-771.

고상환·김동현, 2011, 제주지역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특성 및 교육 만족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983-1010.

구지영, 2013,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유입과 지역 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 장흥군 귀촌을 사례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상철, 2010, 한국 대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지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3), 15-26.

권상철, 박경환, 부혜진, 전중환, 정희선, 조아라 (편역), 2014, 현대 촌락지리학 촌락 재구조화의

과정, 반응, 경험, 시그마프레스, 서울(Woods, Michael, 2005, Rural Geography: Processes, Responses and Experiences in Rural Restructuring, SAGE Publication, London).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박광주, 김양희, 박정윤,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 부혜진, 2011, 일본 과소산촌에서의 지역 자치조직 재편과 주민자치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 이케쿠와 지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6(5), 608-625.
- 서귀포시, 2013, 2013 서귀포시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서귀포시청.
- 서만용, 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2(2), 145-171.
- 엄은희, 2012, 변화하는 농촌성과 지역 귀농운동 조직의 대응: 부산귀농학교를 사례로, 농촌사회, 22(1), 133-172.
- 염미경, 2011,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濟州島研究, 35, 1-38.
- 오성훈, 강아연, 양수진, 이용규, 2013, 제주도 유희공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1), 183-184.
-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77-90.
- 오홍석, 1985,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서울.
- 우중현, 1997,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99-113.
- 유학렬, 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열린충남, 54, 18-25.
- 윤석환, 2010,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135-159.
- 이성용, 하창현, 2014, 제주지역의 인구이동과 지역구조변화 분석, 국토계획, 49(2), 41-53.
- 전북지역농업연구원, 2008, 귀농, 귀촌자 실태조사

- 를 통해 본 귀농, 귀촌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농업*, 3, 83-98.
- 정광중, 2013, 제주도 애월읍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변화의 특징, *한국사지리학회지*, 23(3), 57-79.
- 제주발전연구원, 2014, 기본연구 2014-01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진양명숙, 2008,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4), 105-131.
- 진양명숙, 김주영, 2014, 도시민 농촌 이주에 나타난 농촌성 담론분석, *농촌사회*, 24(2), 121-160.
- 황정임, 최윤지, 조현민, 윤순덕, 2011,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729-764.
- 홍성효, 송정기, 김중수, 2012,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 진안군의 사례, *농촌사회*, 22(2), 49-82.
- 石原 潤, 浜谷正人, 山田正造, 高木彰彦, 後藤宜泰, 高木 睦, 日比野光敏, 宮町良広, 下村修造 (편역), 1986, *ルイス農村社会地理学*, 大明堂, 東京(Lewis, G.J., 1979, *Rural Communities*, David & Charles, London)
- 夫惠眞, 2010, 韓国中山間過疎農村における地域自治組織主導による地域づくり-済州特別自治道西歸浦市南元邑新興2里を事例に-, *地域地理研究*, 16(2), 1-16.
- Brehm, J.M., Eisenhauer, B.W., Krannich, R.S., 2004, Dimensions of Community Attachment and Their Relationship to Well-Being in the Amenity-Rich Rural West, *Rural Sociology*, 69(3), 405-429.
- Gosnell, H., Abrams, J., 2011, Amenity migration: diverse conceptualizations of drivers, socioeconomic dimensions, and emerging challenges, *Geo-Journal*, 76, 303-322.
- Halfacree, K.H. 1993,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 and Alternative Definitions of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9(1), 23-37.
- Halfacree, K.H. 1995, Talking About Rurality: Soci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as Expressed by Residents of Six English Parishes,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1-20.
- Smith, M.D., Krannich, R.S., 2000, "Cultural Clash" Revisited: Newcomer and Longer-Term Residents' Attitudes Toward Land Us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in Rural Communities in the Rocky Mountain West, *Rural Sociology*, 65(3), 396-421.
- 통계자료
- 서귀포시청, 귀농귀촌인구현황(2008~2013) 자료.
- 서귀포시청, 농어촌 숙박업소 현황(2008~2013) 자료.
- 서귀포시청, 휴양펜션 등록현황(2008~2013) 자료.
- 제주시청, 귀농귀촌인구현황(2008~2013) 자료.
- 제주시청, 농어촌 숙박업소 현황(2008~2013) 자료.
- 제주시청, 휴양펜션 등록현황(2008~201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통계청, 2014a, (보도자료) 2013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 통계청, 2014b, (보도자료) 2014년 2월 국내인구 이동.
- 신문기사자료
- 서귀포신문 2014년 6월 16일자 기사 "제2의 고향을 잘 사는 공동체로 만든다".
- 제주의 소리 2014년 1월 7일자 기사 "따뜻한 제주 감귤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 제주일보 2015년 3월 12일자 기사 "제주시 인구 46만명 돌파... 두 달새 1800명 늘어".
- 조선비즈 2015년 2월 12일자 기사 "제주도 귀농, 귀촌 가구 5년 새 32배 급증, '해동 그린엔골드' 관심 늘어"
- 한겨레신문 esc매거진 2011년 3월 24일자 기사 "한겨레 프리즘 30대 이야기".
- 한겨레신문 2013년 4월 8일자 기사 "올레 걷다 늘러사는 사람들... '제주이민' 꼬리문 행렬"
- 웹자료
- 남원1리 / 마을조직  
<http://jejuvill.net/jejutown/domain-root/4209/010>

5?sso=ok  
다음지도 / 월정리 위성사진  
<http://map.daum.net/>  
한겨레신문 / 월정리 사진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3034.html>

- 교신 : 부혜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이메일: [post\\_ism@hanmail.net](mailto:post_ism@hanmail.net) 전화: 064-754-3231)  
Correspondence : Bu, Hyejin (Lecturer),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no, Jeju-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90-756, Korea  
(e-mail: [post\\_ism@hanmail.net](mailto:post_ism@hanmail.net), Telephone number:  
064-754-3231)

(접수: 2015.04.30, 수정: 2015.05.13, 채택: 2015.05.20)